

광주·전남 자영업자
44만명 생존 불투명

(7·完)일곡동 '골목형상점가'

“상권이 겹보이건 커 보이고 어려움도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 버티며營業을 이어가는 상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단기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도가 절실합니다.”



일곡동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가 지난 10월25일 일곡제2근린공원에서 경품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북구 대표 상권도 흔들린다…지속성 있는 지원 절실

골목형 상점이 1천여 곳…최대 지역
행정 부담·정책 변동성에 혼란 지속
“정부·지방 통합 정책으로 기반 잡아야”

최근 찾은 광주 북구 일곡동 중심 상권은 프랜차이즈, 음식점, 카페 등 1천여 개의 점포가 밀집한 북구 최대 상권이다.

광주 일곡지구는 1980년대 후반 도심 과밀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이후 1990년대 중반 입주자 본격화되면서 북구 대표 신도시이자 핵심 주거지로 자리 잡았고 인구 증가에 따라

상권도 자연스럽게 확장됐다.

특히 지난해 일곡동 골목형 상인회에 등록된 점포는 387곳에서 올해 587곳으로 늘었으며 골목형 상점가까지 포함하면 1지역부터 11지역까지 약 1천여 개 점포가 형성돼 있다.

이날 일곡 상권을 둘러본 결과 점포 신축과 리모델링이 이어지며 외형적으로는 활기를 띠는 모습이지만, 이면에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정부 지원 축소로 상인들의 어려움이 더 깊어지고 있었다.

올해 북구 최초로 ‘전지역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지역’으로 지정되며 기대를 모았지만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온누리상품권 선환인을 폐지하면서 상인들이 느끼는 실질적 혜택은 크

게 줄었다.

나성진 일곡동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장은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다 보니 상권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선거철이 다가오면 더 불안해진다”며 “북구머니 할인율이 한때 18%까지 높였어도 일시적인 조치일 뿐, 상권 전체를 안정시킬 지속성 있는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인회장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다 보니 본업과 가게 운영에 더해 행정 업무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다”며 “간담회나 회의 참석도 시간이 안 돼 어렵고 부족한 인력 탓에 공모사업 준비는 더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도 상권 위축의 주요 원

인으로 꼽았다.

나 회장은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인테리어·소매업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코로나 시기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상인도 있다”며 “일곡지구는 전남대 후문 등과 비교하면 공실률은 낮지만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인회는 매년 주민 참여 경품행사 등 자체 행사를 열어 상권 활력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상인회 운영의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

나 회장은 “지난 10월 행사에도 1천명 넘게 몰릴 정도로 수요는 충분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행정 지원은 없다. 정부의 시장매니저 제도도 1년

짜리 단기 사업이라 지속성이 없어 안타깝다”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상인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 인력을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수십 개에 이르지만, 본업과 행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인회로선 단체 카톡이나 밴드에 일정 공유하는 정도가 한계”라며 “공모사업도 화재보험 가입률, 온누리 비율, 누락 점포 정비 등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행정 부담이 매년 누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통시장법과 골목형 상점가 법을 나누고 정부·시·지자체가 통합된 일괄 정책으로 자영업자가 버틸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태호 기자



김장철 위생점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직원들이 각화동의 한 젓갈판매업소에서 젓갈류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와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장 안전수칙



지붕 추락사고 핵심 예방 대책

- 하루나! 작업 중 반드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착용
- 둘! 취약한 지붕재 위 덮개 또는 발판 설치
- 셋! 덮개 또는 발판 설치 곤란 시, 지붕 하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역 경제계 ‘따뜻한 동행’…소외계층에 통 큰 기부

광주은행·기아 오토랜드광주
2026 희망 나눔캠페인 동참

광주은행과 기아 오토랜드광주가 지역 소외 계층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광주은행은 1일 아시아문화전당 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총 1억4천7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모금 참여 기부금 1천만원 ▲‘광주·전남 사랑카드’ 광주 고향사랑기부금 9천1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금 2천만원 ▲쌀 기부금 2천600만원 등 총 1억4천7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광주은행원장과 기아 오토랜드광주가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서 성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기아오토랜드광주 제공>



광주은행은 이와 별도로 전남 지역에도 ▲모금 참여 기부금 1천만원 ▲‘광주·전남 사랑카드’ 전남 고향사랑기부금 6천100만원 등 총 7천100만원을 기탁할 계획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지역사회 대표기업으로서 따뜻한 나눔의 온기가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온도탑 첫 기부기업으로 참여,

김희준 기아 오토랜드광주 경영지원실장이 기부금 2억6천400만원을 전달했다.

올해 광주시의 사랑의 온도탑 모금 목표 금액은 51억2천만원으로 이날 기아의 기부로 광주시의 사랑의 온도탑은 약 52도가 올라갔다.

전달된 기부금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앞으로 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더욱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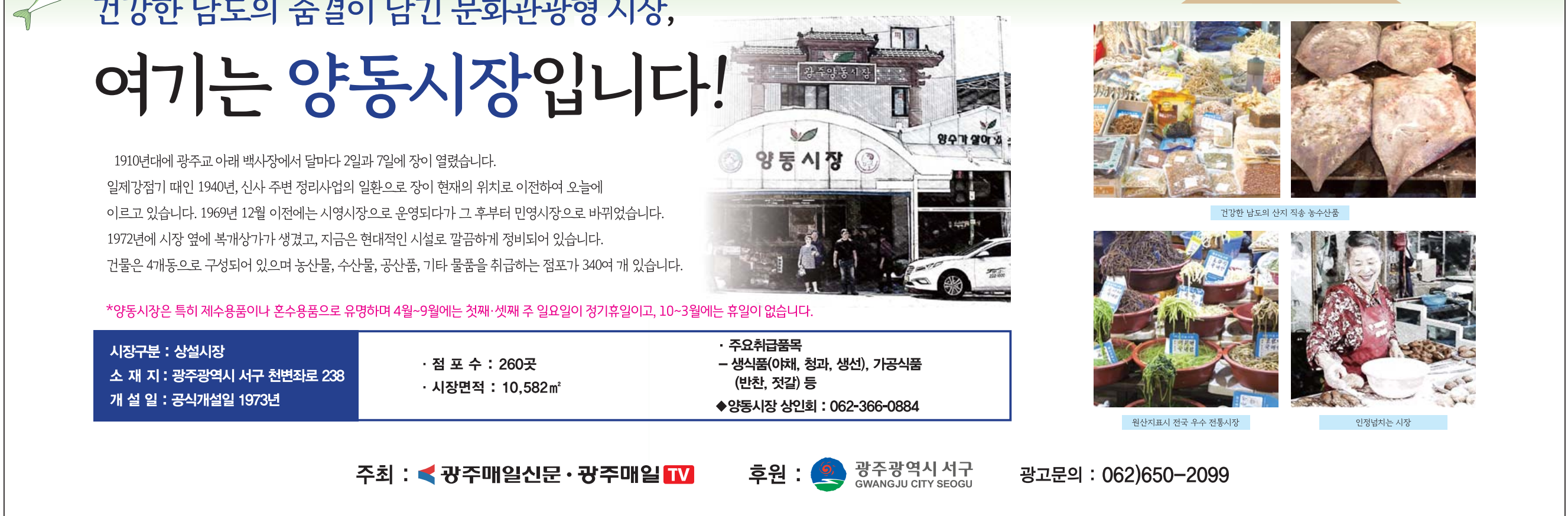
건강한 남도의 숨결이 담긴 문화관광형 시장,
여기는 양동시장입니다!

1910년대에 광주교 아래 백사장에서 달마다 2일과 7일에 장이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40년, 신사 주변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69년 12월 이전에는 시영시장으로 운영되다가 그 후부터 민영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1972년에 시장 옆에 복개상가가 생겼고, 지금은 현대적인 시설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기타 물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340여 개 있습니다.

*양동시장은 특히 제수용품이나 혼수용품으로 유명하며 4월~9월에는 첫째·셋째 주 일요일이 정기휴일이고, 10~3월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시장구분 : 상설시장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38 개설일 : 공식개설일 1973년	·점포수 : 260곳 ·시장면적 : 10,582㎡	·주요취급품목 -생식물(야채, 청과, 생선), 가공식품(반찬, 젓갈) 등 ◆양동시장 상인회 : 062-366-0884
---	--------------------------------	---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광고문의 : 062)650-2099



양동시장 둘러보기

건강한 남도의 산지 특산물

원산지표시 전국 우수 전통시장

인정받지는 시장